<h1>나 혼자만 레벨업-48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c34d437f59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8화</p>  
<p>쿠웅-!</p>  
<p>보스방의 문이 열렸다.</p>  
<p>안은 어두웠다.</p>  
<p>감각 스탯의 힘으로 강화된 진우의 시력으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보이는 건 발밑뿐.</p>  
<p>바닥은 석판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다.</p>  
<p>촘촘하게 이어진 잿빛 석판들은 체감 온도와 무관하게 차갑고 서늘한 느낌을 주었다.</p>  
<p>그 석판 위에 발을 내딛자마자.</p>  
<p>화르르륵-!</p>  
<p>벽면에 걸려 있는 무수한 횃불들이 일제히 타오르며 안을 밝혀 주었다.</p>  
<p>'역시... 지하신전 때와 같다.'</p>  
<p>진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.</p>  
<p>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걸어갔다.</p>  
<p>좌우에는 거대한 기둥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,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는 높은 왕좌가 놓여 있었다.</p>  
<p>'마치...'</p>  
<p>영화에서나 보던 왕의 알현실을 연상시켰다.</p>  
<p>규모는 차이가 컸지만.</p>  
<p>몇 걸음 걷다 보니 곧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.</p>  
<p>쿵!</p>  
<p>진우는 잠깐 뒤를 돌아보았으나 당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.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갔다.</p>  
<p>'...강한 기운이 느껴진다.'</p>  
<p>전직 퀘스트를 끝내려면 저 왕좌가 있는 곳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.</p>  
<p>그리고 그런 종류의 예감은 대부분 빗나간 적이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열 발짝쯤 떨어진 기둥 사이에 숨어 있던 인영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길을 가로막았다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척.</p>  
<p>멈춰 선 놈이 이쪽으로 돌아섰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는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놈이 보스라는 사실은 놈의 머리 위에 검붉은색으로 떠 있는 이름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.</p>  
<p>[기사단장 핏빛의 이그리트]</p>  
<p>붉은 갑옷을 입은 기사였다.</p>  
<p>전신을 갑주로 무장한 것은 다른 기사들과 같았지만, 둔해 보였던 그들과 달리 이쪽은 매우 날렵해 보였다.</p>  
<p>눈에 띄는 장비는 투구.</p>  
<p>투구 꼭대기에서 뒤쪽으로 이어진 붉은색의 긴 갈기가 말의 꼬리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다.</p>  
<p>투구를 살펴보던 진우는 다른 점 하나를 더 발견했다.</p>  
<p>'쟤는... 눈이 있네?'</p>  
<p>눈이라고 해야 할지, 눈동자라고 해야 할지.</p>  
<p>아무튼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은빛 광채가 흘러나왔다. 두 개의 광채는 기계에서 나오는 빛처럼 차갑게 느껴졌다.</p>  
<p>그 차가운 눈빛이 이쪽을 향했다.</p>  
<p>뒷목의 털이 쭈뼛 섰다.</p>  
<p>'강한 기운의 정체는 저놈이었나...'</p>  
<p>어쩌면 저 녀석을 쓰러뜨리는 게 전직 퀘스트의 목표일지도 모른다.</p>  
<p>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.</p>  
<p>진우는 이그리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주먹 쥔 두 팔을 들어 올렸다.</p>  
<p>'어차피 단검은 안 먹히니까.'</p>  
<p>기사를 잡는 데 필요한 건 타격.</p>  
<p>강한 힘이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를 가만히 바라보던 이그리트가 갑자기 자신의 붉은 망토를 벗었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망토가 땅에 떨어졌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놈의 기행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.</p>  
<p>옆구리의 장검과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단검 두 개를 차례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.</p>  
<p>보란 듯이 앞으로 내밀고서는 하나씩.</p>  
<p>챙그랑.</p>  
<p>챙그랑.</p>  
<p>고요했던 보스방 안에 금속과 석판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졌다.</p>  
<p>무기를 모두 버린 이그리트는 곧 진우를 흉내 내는 것처럼 양 주먹을 움켜쥐고 파이트 자세를 취했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저놈 설마...'</p>  
<p>내가 맨손으로 싸우려 드니까 자신도 맨손으로 싸우겠다는 건가?</p>  
<p>진우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'...얕보이고 있다.'</p>  
<p>몬스터의 도발 아닌 도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 갔다.</p>  
<p>감정이 격해질수록 머리는 차갑게.</p>  
<p>심장의 박동이 점차 빨라지는 것과는 반대로 진우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.</p>  
<p>'와라.'</p>  
<p>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읽었는지, 이그리트가 일직선으로 쇄도해 왔다.</p>  
<p>탓, 탓, 탓, 탓!</p>  
<p>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힘든 스피드였다.</p>  
<p>'갑옷의 속도 감소 패널티는 근력이 80 미만일 때만 적용된다고 했었지.'</p>  
<p>놈의 근력은 최소한 80 이상!</p>  
<p>움직임으로 봐선 민첩 또한 상급 헌터에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.</p>  
<p>지척까지 다가온 이그리트가 바로 앞에서 점프했다.</p>  
<p>탓!</p>  
<p>공중으로 도약한 놈은 무릎을 내밀어 진우의 안면을 노렸다.</p>  
<p>'빠르다!'</p>  
<p>하지만 전투태세에 돌입한 진우도 움직임이 가속된 상태였다.</p>  
<p>몸을 90도에 가깝게 뒤로 눕혀 이그리트의 공격을 흘려 보냈다.</p>  
<p>진우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돌진 후 한참 뒤쪽으로 밀려나던 여타의 기사들과 다르게 이그리트는 곧바로 땅에 착지했다.</p>  
<p>쿵!</p>  
<p>깔끔한 동작에 감탄할 새는 없었다.</p>  
<p>빠르게 달려간 진우는 이그리트가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놈의 얼굴을 사선으로 올려 찼다.</p>  
<p>하지만 놈은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정확하게 팔을 움직였다.</p>  
<p>쾅!</p>  
<p>진우의 오른쪽 다리가 이그리트의 왼손에 가뿐히 막혔다.</p>  
<p>'이럴 수가!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한쪽 발이 묶인 사이 이그리트의 주먹이 정면으로 날아왔다.</p>  
<p>쉬이익-!</p>  
<p>본능적으로 두 팔을 올려 가드했으나 충격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.</p>  
<p>쾅!</p>  
<p>가드가 풀리며 몸이 붕 떠올랐다.</p>  
<p>"뭣?"</p>  
<p>진우의 입에서 경악성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하지만 그건 곧 신음성으로 바뀌었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어느새 이그리트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.</p>  
<p>어떻게 대처해 볼 틈도 없이 이그리트의 왼쪽 주먹이 진우의 옆얼굴을 강하게 내려쳤다.</p>  
<p>쾅!</p>  
<p>바닥에 처박혔다가 반동으로 튕겨난 진우는 한참 동안 뒤쪽으로 구르다가 간신히 일어났다.</p>  
<p>삐이익-</p>  
<p>귓속에 이명이 들려왔다.</p>  
<p>진우는 두어 번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.</p>  
<p>그러자 이명이 좀 잠잠해졌다.</p>  
<p>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가까이에 있었다. 흐릿한 시야에 걸어오는 이그리트가 들어왔다.</p>  
<p>저벅저벅.</p>  
<p>진우는 눈을 부릅뜨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결국 이그리트가 진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섰다.</p>  
<p>그때부터 난타전이 시작됐다.</p>  
<p>이그리트는 진우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.</p>  
<p>공격을 몸으로 받아 내고 대신 맞받아쳤다.</p>  
<p>퍽!</p>  
<p>이그리트의 고개가 살짝 옆으로 꺾였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가 자세를 바로잡기도 전에 날카로운 반격이 되돌아왔다.</p>  
<p>퍽!</p>  
<p>진우의 몸이 휘청거렸다.</p>  
<p>퍽!</p>  
<p>이번엔 이그리트가 한 발 뒤로 밀려났다.</p>  
<p>퍽!</p>  
<p>복부를 타격당한 진우는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.</p>  
<p>"컥!"</p>  
<p>입에서 울컥 핏물이 올라왔다.</p>  
<p>'말도 안 되는 일이...!'</p>  
<p>지금 진우는 물리 데미지 감소 스탯의 총합이 무려 30퍼센트를 넘어선 상태였다.</p>  
<p>그런데 이그리트에게 맞는 한 방 한 방이 해머로 두들기는 것처럼 아프게 들어왔다.</p>  
<p>반면 자신의 공격은 거의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었다.</p>  
<p>공방은 오래가지 않았다.</p>  
<p>퍽!</p>  
<p>비틀거리던 진우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"으윽..."</p>  
<p>진우 앞에 선 이그리트가 공격을 멈추고 물끄러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의문스러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진우를 무시하고, 이그리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검으로 손을 뻗었다.</p>  
<p>그러자 검이 딸려 왔다.</p>  
<p>이그리트는 검을 양손으로 쥐고는 진우의 옆쪽으로 돌아갔다.</p>  
<p>검끝이 곧 하늘을 향했다.</p>  
<p>진우는 이그리트의 의도를 눈치챘다.</p>  
<p>'참수를 하겠다는 건가?'</p>  
<p>기사단장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놈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별다른 저항 없이 최후를 받아들이는 듯 보이자 이그리트는 참수를 집행했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순순히 당해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다.</p>  
<p>검이 수직으로 떨어졌다.</p>  
<p>쉬이익-</p>  
<p>그러나 진우가 치켜든 왼손이 장검을 가로막았다.</p>  
<p>캉!</p>  
<p>쇠가 부딪히는 소리!</p>  
<p>여기 들어오기 직전 얻었던 건틀릿이 손을 보호해 주었다.</p>  
<p>흠칫!</p>  
<p>이그리트가 놀라는 것이 느껴졌다.</p>  
<p>진우는 틈을 놓치지 않고 오른손 펀치를 날렸다.</p>  
<p>예상대로 이그리트는 피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.</p>  
<p>'또 반격을 날리겠다는 거겠지.'</p>  
<p>한 대 맞더라도 한 대를 돌려주면 자신이 이득이라는 계산.</p>  
<p>그러나 놈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.</p>  
<p>'카사카의 독니!'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찰나의 순간에 소환된 카사카의 독니가 손에 쥐어졌다.</p>  
<p>진우는 단검을 놈의 눈에 쑤셔 박았다.</p>  
<p>푹!</p>  
<p>크아아아아아아아아-!</p>  
<p>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동시에 단검이 꽂힌 이그리트의 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졌다.</p>  
<p>진우는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'이제 어떡한다?'</p>  
<p>겨우 눈 하나를 잃게 만든 걸로 승부를 뒤집을 순 없었다.</p>  
<p>뭔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.</p>  
<p>그때 문득 진우의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.</p>  
<p>일전에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끔찍한 공격!</p>  
<p>그 한 방을 이그리트에게 먹여 주자.</p>  
<p>의식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다.</p>  
<p>진우가 몸을 숙여 이그리트의 허리를 안았다.</p>  
<p>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크아아악-!</p>  
<p>이그리트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진우의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이를 악물고 이그리트를 놓아주지 않았다.</p>  
<p>오히려 속도를 올렸다.</p>  
<p>"질주!"</p>  
<p>[이동 속도가 40% 증가합니다.]</p>  
<p>진우의 다리가 더더욱 빨라졌다.</p>  
<p>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빠른 속도가 피부에 와 닿았다.</p>  
<p>'그래, 이대로.'</p>  
<p>이대로 박아 버리는 거다!</p>  
<p>진우는 놈의 허리에 두른 손에서 힘을 풀지 않고서,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낼 수 있는 전속력을 다해 달렸다.</p>  
<p>물론 이 상태로 부딪치면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도 무시하지 못한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에게는 비장의 패시브가 하나 있었다.</p>  
<p>순식간에 좁혀진 거리!</p>  
<p>어느새 벽이 앞에 있었다.</p>  
<p>쿠앙-!</p>  
<p>폭음과 함께 이그리트는 벽과 충돌했다.</p>  
<p>동시에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체력이 30% 이하가 되어 스킬: '근성'이 발동됩니다.]</p>  
<p>[받는 피해가 50% 감소합니다.]</p>  
<p>일시적으로 보스방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었다.</p>  
<p>"크윽."</p>  
<p>진우는 한 발짝 물러섰다.</p>  
<p>이그리트는 벽에 반쯤 박혀 있는 상태에서도 목숨이 붙어 있었다.</p>  
<p>놈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.</p>  
<p>'...끝내야 돼.'</p>  
<p>진우는 놈의 눈에 박힌 카사카의 독니를 뽑아냈다.</p>  
<p>그 과정에서 이그리트의 몸이 한번 들썩였다.</p>  
<p>진우는 단검을 역수로 쥐고 놈의 목을 향해 내리찍었다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캉!</p>  
<p>공격은 들어가지 않았다.</p>  
<p>다시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캉!</p>  
<p>단검 끝에서 불꽃이 튀었다.</p>  
<p>놈의 목을 보호하는 판금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.</p>  
<p>다시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캉!</p>  
<p>다시.</p>  
<p>캉!</p>  
<p>다시.</p>  
<p>캉!</p>  
<p>그리고 마침내.</p>  
<p>'급소 찌르기!'</p>  
<p>콰직!</p>  
<p>카사카의 독니가 놈의 목 깊숙한 곳에 파고들었다.</p>  
<p>[기사단장 핏빛의 이그리트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진우는 양손을 번쩍 들었다.</p>  
<p>뒤로 물러서던 진우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을 짚었다.</p>  
<p>"허억, 허억."</p>  
<p>진우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 냈다.</p>  
<p>간신히 이겼다.</p>  
<p>정말로 아슬아슬했었다.</p>  
<p>'그런데... 이제 퀘스트가 끝난 거 아닌가?'</p>  
<p>한참 동안 숨을 고르던 진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이놈을 잡으면 전직 퀘스트가 끝날 줄 알았는데, 어떤 메시지도 날아오지 않았다.</p>  
<p>주위를 둘러봐도 딱히 달라진 건 없었다.</p>  
<p>변한 거라곤 한 가지.</p>  
<p>이그리트의 몸에서 새어 나오기 시작한 몇 개의 빛줄기.</p>  
<p>아이템 신호였다.</p>  
<p>'일단은 저거라도 챙겨 두자.'</p>  
<p>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.</p>  
<p>챙길 수 있을 때 하나라도 챙겨 놓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.</p>  
<p>진우는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.</p>  
<p>[아이템: 붉은 기사의 투구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룬석: 지배자의 손길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가죽 주머니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즉시 귀환석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시겠습니까?</p>  
<p>뭐가 이렇게 많지?</p>  
<p>진우는 의아해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.</p>  
<p>'모두 획득.'</p>  
<p>그중에서 가장 먼저 가죽 주머니가 창고로 들어갔다.</p>  
<p>[아이템: 가죽 주머니]를 개봉했습니다.</p>  
<p>[150만 골드]가 들어 있었습니다.</p>  
<p>[150만 골드]를 획득했습니다.</p>  
<p>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'보상의 격이 다르잖아?'</p>  
<p>확실히 잡는 데 애를 먹은 만큼 보람이 있었다.</p>  
<p>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가죽 주머니에서 150만이나 되는 거금이 나왔다.</p>  
<p>그 정도면 상점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다.</p>  
<p>기대도 안 하던 가죽 주머니에서 그 정도 득템이라면 투구나 룬석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.</p>  
<p>진우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투구의 정보를 오픈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붉은 기사의 투구]</p>  
<p>입수 난이도: S</p>  
<p>분류: 방어구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 +15%</p>  
<p>체력 +20, 근력 +20</p>  
<p>"S급!"</p>  
<p>진우는 환희에 찬 비명을 터트렸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